

보도자료

포용적 <mark>노동시장,</mark> 사람중심 <mark>일자리</mark>

▲보도일시: 2019. 8. 8.(목) 조간, 〈인터넷 2019. 8. 7.(수) 12:00 이후〉 ▲총 13쪽

-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기반과
 과 장 오기환 (044-202-7671)
 서기관 김동현 (044-202-7678)
- ❖ 한국고용정보원 플랫폼운영팀
 팀 장 송문섭 (043-870-8571)
 연구원 이무훈 (043-870-8572)
- ◆ 한국고용정보원 전략기획팀
 팀 장 김일환 (043-870-8760)
 대 리 박신엽 (043-870-8767)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사회 초년생도, 경력 단절 여성도, 중장년층도 인공 지능 추천으로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 □ 워크넷(www.work.go.kr)은 2018년 12월말부터 **인공 지능으로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추천해주는 '더 워크**(The Work)'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워크' 서비스를 활용해서 취업에 성공했을까? 그리고 '더 워크'를 써 본 사람들은 인공 지능의 일자리 추천에 만족했을까?
- □ 2019년 4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 동안 취업에 성공한 사람 중에서 '더 워크'가 추천해 준 **일자리에 전자 우편으로 입사 지원을 하고 실제로 취업한 사람은 2,666명**이다.
 - ※ 주의: 본인이 다른 경로 또는 워크넷의 채용 정보 검색 서비스를 통해 같은 자리를 알게 되어 입사 지원을 하고 채용되었으나 우연히 '더 워크' 서비스가 추천한 일자리와 일치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2,666명이 모두 '더 워크'서비스를 통해 취업한 것은 아님
 - 이 중에서 '더 워크' 추천 일자리에 2건 이상 지원했고, 지원한 일자리 중에서 30% 이상이 '더 워크' 추천 일자리인 경우가 1,039명이고,
 - '더 워크' 추천 일자리에 3건 이상 지원하면서, 지원한 일자리 중에서 50% 이상이 '더 워크' 추천 일자리인 경우는 363명이다.

□ 이들 중의 일부와 워크넷의 '더 워크' 서비스를 사용한 소감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① 특성화고 졸업생(여, 19세, 대전)

- ▶ (현재 하는 일) 세무 회계, 고객 상담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음
- ▶ (활용 계기) 상업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직업 상담 선생님들께서 워크넷을 추천해서 자주 사용함. '더 워크' 서비스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로그인 하면 화면 아래에 추천 창이 나타난 걸 보고 이력서를 썼음
- ▶ (사용 소감) 솔직히 대전 지역에 이렇게 많은 일자리가 있을 줄 몰랐어요.
 조금 놀랐습니다. 이제 갓 스무살이 되다보니 경력이라고 할 게 없었는데
 제가 지원할만한 일자리가 많이 추천돼서 좋았습니다.

② 경력단절여성(여, 36세, 경남)

- ▶ (현재 하는 일) 무역 회사에서 조선업 기자재 수출입 관리 업무를 맡고 있음 (일본-한국 조선소간 연락 업무)
- ▶ (활용 계기) 과거에 민간 사이트를 활용해보았는데 허위 공고도 많고, 내개인 정보만 받아가는 일이 종종 있어 워크넷만 사용함. 정부가 운영하기 때문에 신뢰가 가고 급여 정보도 명확히 나와서 좋았음
 - ※ '더 워크' 서비스를 활용해 취업했음
- ▶ (사용 소감) 개인 경력이나 자격만 입력해놓으면 그에 맞게 일본어 통역이나 무역 관련된 공고가 딱딱 나와서 좋았습니다.

③ 재취업자(여, 52세, 경기)

- ▶ (현재 하는 일) 사회복지사
- ▶ (활용 계기) 아주 오래 전에 한 번 접속한 적은 있는데 그동안 안 쓰다가 이번에 일자리를 구하면서 다시 사용하게 됨. '더 워크' 서비스에서 추천하는 업체 목록을 보고 전화해 이력서를 접수했음
- ▶ (사용 소감) 워크넷이 아니었다면 생활 정보지를 보고 일자리를 찾았을 것임.
 딱 맞는 일자리를 추천받고 지원하게 되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함. 전 직장
 과 전혀 다른 업종에 지원했는데 알맞은 공고가 추천되어 만족스러웠음

④ 재취업자(남, 46세, 서울)

- ▶ (현재 하는 일) 사회적기업에서 광고디자인팀 팀장을 하고 있음
- ▶ (활용 계기)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은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워크넷을 사용하게 되었음. '더 워크' 추천 목록을 보고 지원했음
- ▶ (사용 소감) 사용하기가 편했고 나이와 경력, 분야를 고려했을 때 알맞은 채용 공고가 추천되었음. 광고디자인 분야의 일자리 자체는 잡코리아가 워크넷 보다 더 많은 것 같음

⑤ 사회초년생(남, 23세, 부산)

- ▶ (현재 하는 일) 관세법인에서 검역, 통관 관련 업무를 담당
- ▶ (활용 계기) 워크넷은 다른 사이트와 달리 지원자 비율, 연령대별 인원 등의 통계가 제공되어 선호함. '더 워크' 서비스 이름은 기억나지 않으나 로그인 하면 추천되는 채용 정보를 확인하고 지원했음
- ▶ (사용 소감) 무역을 전공하고 무역 관련 자격증도 있는데 이에 맞춘 일자리가 추천되었음

⑥ 기술직(남, 23세, 대구)

- ▶ (현재 하는 일) 버스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등을 유지보수하고 근태 관리 장비의 고객 서비스(A/S)를 함
- ▶ (활용 계기) 사람인 같은 민간 사이트를 활용했는데 고용센터를 방문하면서 워크넷을 추천받아 활용. 이력서를 입력하니 추천 목록이 나와서 그걸 보고 지원했음
- ▶ (사용 소감) 제가 원하는 쪽으로 연결이 되어서 괜찮았고 지금 회사도 잘 다니고 있어 만족스러움

⑦ 재취업자(남, 64세, 서울)

- ▶ (현재 하는 일) 빌딩 관리소장.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을 관리함
- ▶ (활용 계기) '더 워크' 서비스를 아주 잘 알고 있음. 빅데이터다 뭐다 해서 로그인하면 채용과 훈련 등 여러 가지를 추천해주던데 이전과 비교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함
- ▶ (사용 소감) '더 워크'에서 추천해주는 공고가 관심 분야·경력·자격 등과 아주 잘 맞음

- □ 김효순 고용지원정책관은 "정부 혁신 차원에서 시작한 인공지능 기반 취업 지원 서비스가 고용센터로 잘 찾아오지 않는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 "앞으로 인공지능 기반 일자리 추천 알고리즘을 사회 초년생, 경력 단절 여성, 중장년 재취업자 등 대상별로 특화해 구직자에게 보다 적합한 일자리가 추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인터뷰 당사자취재를 원하시면 한국고용정보원 이무훈 연구원(☎043-870-8572, 인공지능 관련 내용), 박신엽 대리(☎043-870-8767, 추가인터뷰관련 내용)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더 워크' 서비스 활용 취업 성공자와의 면담 내용

1. 특성화고 졸업생(여, 20대)

직종 경리직	거주지	대전	추가인터뷰	동의
---------------	-----	----	-------	----

☞ 현재 하시는 일

- 세무 회계, 고객 상담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솔직히 좀 바쁜 것 같아요(웃음). 그래도 회사 사람들이 좋아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 취업 성공 소감

- 좋습니다(웃음). 이제 3개월차가 되었는데요. 특히 부모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40여 곳에 이력서를 넣었는데 이 회사에 들어오기바로 전에는 최종 면접에 떨어지기도 해서 마음이 초조했어요. 지금은 후련합니다.

☞ 과거 워크넷 활용 여부

- 네! 저는 상업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직업 상담 선생님들께서 추천해주셔서 워크넷을 자주 썼어요.

☞ '더 워크'(The Work) 서비스를 아는지

- 음... 이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로그인하면 하단 아래에 추천 창이 나타난 걸 보고 이력서를 썼어요.

☞ 사용 소감

- 저는 솔직히 대전 지역에 이렇게 많은 일자리가 있을 줄 몰랐어요. 조금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제가 갓 스무살이 되다보니 경력이라고 할 게 없었는데, 그래도 제가 지원할만한 일자리가 많이 추천돼서 좋았습니다.

☞ 구체적으로 만족스런 점

- 음... 제가 다른 채용 정보 사이트는 써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지원 기회 자체가 이렇게 많이 제공된 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기업 정보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 더 워크 추천 채용 공고가 전공과 맞는지

- 저는 경리 업무를 맡고 싶어서 고등학교 때부터 착실히 교육을 받았는데요 관련 일자리가 많이 추천됐어요.

때 대기업을 지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추천 채용 공고가 눈높이에 맞는지

- 저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부담스러워서 처음부터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괜찮은 기업이 많더라구요.

☞ 아쉬운 점

- 글쎄요. 저는 만족스럽게 썼어요.

☞ 직장생활 각오 한마디

- 처음 적응할때는 사실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잘 적응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좋구요. 일단은 1년 동안 열심히 다니는 걸 목표로 해서, 차근차근 경력도 쌓고 능력도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2. 경력단절여성 (여, 30대)

직종	무역회사 사무직	거주지	경남	추가인터뷰	미동의
----	----------	-----	----	-------	-----

☞ 현재 하시는 일

- 무역회사에서 조선업 기자재 수출입 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일본 조선소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제조업체에 연결해주고, 다시 한국 업체로부터 물건을 받아서 일본으로 보내주는 업무입니다.

☞ 취업 성공 소감

- 출산 이후에 경력이 잠시 단절돼 막막했는데, 새로운 직장에 자리잡게 돼 기쁩니다. 원래 다니던 직장은 일본계 회사였는데 출산하면서 회사를 그만 뒀습니다. 2~3년의 경력 공백이 있었는데요. 이후 제 일본어 능력을 살릴 수 있는 직장을 찾게 되어 좋습니다.

☞ 과거 워크넷 활용 여부

- 저는 워크넷만 씁니다. 민간 업체의 경우 허위 공고도 많고 연락했더니 제 개인 정보만 받아가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워크넷은 정부가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가 가고 급여정보도 명확히 나와서 좋았습니다.

☞ '더 워크'(The Work) 서비스를 아는지

- 네, '더 워크'를 활용해 취업했습니다.

☞ 사용 소감

- 편하더라구요. 추천 목록이 쫘르르 떠서 그걸 그대로 보고 지원했습니다.

☞ 구체적으로 만족스런 점

- 제 개인 경력이나 자격만 입력해놓으면 그에 맞게 일본어 통역이나 무역 관련된 공고가 딱딱 나와서 좋았습니다. 알맞은 정보가 추천되더라구요.

☞ 아쉬운 점

- 글쎄요... 딱히 아쉬운 점은 없었습니다. 정말 세부적인 공고를 찾으려면 제가 따로 상세 검색을 하면 되는 것 같거든요.

☞ 대기업을 지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추천 채용공고가 눈높이에 맞는지

- 아니에요. 경남권에 대기업도 사실 몇 개 없기도 하고 (산업)공단 같은 경우는 일이 늦게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지원할 때 제외했습니다. 지금 직장에 만족합니다.

☞ 직장생활 각오 한마디

- 새 출발하는 마음가짐으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3. 재취업<mark>자</mark> (여, 50대)

직종	사회복지사	거주지	경기	추가인터뷰	미동의
----	-------	-----	----	-------	-----

☞ 현재 하시는 일

-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전혀 다른 업종에서 일하다가 이 일을 처음 하게 된 것이라서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지금은 만족스럽게 다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큰 보람을 느낍니다.

☞ 취업 성공 소감

- 뿌듯합니다. 예전에 다른 직장을 다닐 때는 생활에 여유가 있었지만, 노후를 대비해 멈추지 않고 나아간다는 생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준비했습니다. 결국 자격증도 따고, 지금 직장을 찾게 돼 좋습니다.

☞ 과거 워크넷 활용 여부

- 아주 오래 전에 한 번 접속한 적은 있는데요. 그동안 쓰지 않다가 이번에 일자리를 구하면서 다시 사용하게 됐습니다.

☞ '더 워크'(The Work) 서비스를 아는지

- 네, 알고 있습니다. 더 워크 서비스에서 추천하는 업체 목록을 보고 전화해 이력서를 접수하게 됐습니다.

☞ 사용 소감

- 워크넷이 아니었다면, 생활 정보지를 보고 일자리를 찾았을 수도 있었는데요. 딱 알맞은 일자리를 추천받고 지원하게 되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만족스러우셨나요?

- 전 직장과는 전혀 다른 업종에 지원했기 때문에 워크넷에 이력서가 두 종류 올려져 있었습니다. 생산직과 사회복지직 두 가지였구요. 알맞은 공고가 더 워크에 떠서 만족스러웠습니다. 특히, 생산직 채용공고가 많이 들어왔구요.

☞ 아쉬운 점은 없으셨나요?

- 더 워크와는 별개로 워크넷의 지역별 구분이 너무 세분화되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 저같은 50대는 일자리를 구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군구까지만 보고 다 지원하려고 했는데, 동 위치까지 너무 자세하게 나오는 것 같더라구요. 젊은 사람들이야 익숙해서 괜찮겠지만 저와 같은 연령대에서는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추천 채용공고가 기존 경력이나 기술, 자격, 전공 등과 맞는지

- 네, 예전 경력과 보유한 자격하고 딱 맞게 추천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연결은 잘 됐어요. 다만 저 같이 직종을 전환하려는 사람에게는 조금 아쉬웠던 점이 있습니다. 새로 지원하려는 사회복지사 업종에서는 추천이 좀 적게 들어왔던 것 같아요.

때 대기업을 지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추천 채용공고가 눈높이에 맞는지

- 전혀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은 급여만 보고 대기업에 지원을 하지만 저와 같은 나이 대에 이르게 되면 일을 하면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도 고려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점을 고려했기 때문에 문제 없었습니다.

☞ 직장생활 각오 한마디

- 이 귀한 직장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복지사는 돌보는 사람들이 때로는 본인이나 본인 가족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저 또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사람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4. 재취업자 (남, 40대)

☞ 혀재 하시는 일

- 충남 천안의 사회적 기업에서 광고 디자인팀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입사 3개월 차라 일단 업무를 파악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취업 성공 소감

- 부모님께서 가장 좋아하시구요. 제가 경력직으로 2~3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온 것이라서 개인적으로도 뿌듯합니다. 책임감도 느끼고 있구요.

☞ 과거 워크넷 활용 여부

-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은 이후 고용부를 통해 실업 급여를 신청하면서 구직 활동을 보고하기 위해 워크 넷을 처음 접했습니다. 구직 활동을 할 때는 워크넷과 민간 채용 사이트를 같이 사용했구요.

☞ '더 워크'(The Work) 서비스를 아는지

- 네, '더 워크' 추천 목록을 보고 지원한 게 맞습니다.

☞ 사용 소감

- 일단 사용하기가 편했습니다. 제게 맞는 채용 정보가 연결됐습니다.

☞ 구체적으로 만족스런 부분

- 제 나이랑 경력, 분야를 고려했을 때 저에게 알맞은 채용 공고가 추천됐습니다.

☞ 아쉬운 점

- 사실 광고 디자인 쪽의 채용 공고는 민간 채용 사이트와 비교해서 워크넷에는 많이 안올라오는 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민간 채용 사이트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더 많은 추천 공고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때 대기업을 지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추천 채용공고가 눈높이에 맞는지

- 광고디자인을 하는 회사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다만, 예전 직장이 서울이다보니 아무래도 일하는 지역이 바뀌면서 불편한 점은 조금 있습니다. 다니는 회사 나름대로 장점이 많아 잘 다니고 있습니다.

☞ 직장생활 각오 하마디

- 책임자로 들어온 만큼 팀을 체계적으로 다듬고 안정화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어깨가 무거운데 미래지향적인 마음가짐으로 팀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 사회초년생 (남, 20대)

직종	관세업무	거주지	부산	추가인터뷰	동의
----	------	-----	----	-------	----

☞ 현재 하시는 일

- 관세법인에서 검역, 통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취업 성공 소감

- 취업하니까 정말 좋습니다. 그렇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이제 더 이상 학생이 아니라 정말로 사회인이 되었다는 생각에 조금 씁쓸한 점도 있습니다.

☞ 과거 워크넷 활용 여부

- 네, 자주 사용했습니다. 민간 채용 정보 사이트도 활용하고 워크넷도 사용 하는데 워크넷을 특히 선호합니다.

☞ 그 이유는?

- 제가 구직 사이트를 다 돌아다녀봤는데 워크넷은 다른 사이트와 다르게 지원자 비율, 연령대별 인원 등 각종 통계가 싹 다 나옵니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일자리를 알아보면서 도움이 됐습니다.

- 또 요새 워크넷이 이것저것 바뀐 것 같은데, 예전보다 조금 더 깔끔해진 것 같습니다.

☞ '더 워크'(The Work) 서비스를 아는지

- 사실 정확히 '더 워크'라는 이름이 기억나지는 않는데 로그인하면 추천 되는 채용 정보를 확인하고 지원했습니다.

☞ 더 워크 사용 소감

- 나에게 꼭 필요한 채용 정보만 추천이 되고 관련이 없는 업체는 나오지 않아서 보기 좋았습니다.

☞ 구체적으로 만족스런 점

- 일단 추천 목록하고 제 전공, 자격 사항과 꼭 알맞게 연결이 됐습니다. 제가 무역을 전공하고 무역 관련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는데, 이에 맞춘 일자리가 추천됐습니다.

☞ 아쉬운 점

- 더 워크와는 별개로 워크넷 채용공고나 기업 정보마다 댓글 기능이 *추*가됐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때 대기업을 지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추천 채용공고가 눈높이에 맞는지

- 괜찮았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도 변하고 있고, 중소기업을 밀어주는 정부 정책도 많아서 저는 처음부터 중소기업쪽으로 지원했습니다.

☞ 직장생활 각오 한마디

- 열심히만 하면 다 되는 세상인 줄 알았는데, 막상 나와보니 잘해야만 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저도 더 능력을 쌓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6. 기술직 (남, 20대)

☞ 현재 하시는 일

- 버스 CCTV 등을 유지보수하고 근태 관리 장비 A/S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 취업 성공 소감

- 요즘 취업하기가 어려운데 어려운 관문을 뚫고 이렇게 취업하게 되어 만족스럽습니다.

☞ 과거 워크넷 활용 여부

- 사람인 같은 민간 사이트를 활용하다가 고용센터를 방문하면서 처음 사용 하게 됐습니다.

☞ '더 워크'(The Work) 서비스를 아는지

- 채용 공고를 따로 검색하진 않았구요. 고용센터에서 알려준대로 이력서 같은 정보를 입력하니 추천 목록이 나와서 그걸 보고 지원했습니다.

☞ 사용 소감

- 일단 제가 원하는 쪽으로 연결이 되어서 괜찮았고 지금 회사도 잘 다니고 있어서 만족스럽습니다.

☞ 구체적으로 만족스런 부분

- 제 자격과 지원하고 싶은 분야에 알맞게 연결됐습니다.

☞ 아쉬운 점

- 민간 채용 정보 사이트도 같이 활용해봤는데 워크넷에 대해 특별히 아쉬운 점은 없습니다.

☞ 직장생활 각오 한마디

- 아직은 업무도 익숙하지 않고 잘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나중에 힘들 때도 있겠지만 쉽지 않게 취업한 직장인만큼 열심히 능동적으로 일해서 좋은 경력을 쌓고 싶습니다.

7. 재취업자 (남, 60대)

직종	빌딩 관리	거주지	서울	추가인터뷰	동의
----	-------	-----	----	-------	----

☞ 현재 하시는 일

- 빌딩 관리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800평 규모 건물을 관리합니다. 건물주 요청으로 함께 일할 사람도 채용해서 같이 일 하고 있습니다.

☞ 취업 계기

- 저는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25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을 받고 물러난 뒤에도, 쉬지 않고 자기 계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인중개사와 소방 관련 각종 자격증을 취득했구요.

잠시 공인중개사를 할 때 분양 대행을 하면서 건물에 대해 잘 알게 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인중개사를 그만두고서는 빌딩 관리하는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생각으로 이력서도 한 200건 썼습니다. 치열하게 한 덕택에 결국 지금 회사에 만족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 취업 성공 소감

- 몸만 건강하면 어떤 직업에서든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예전보다는 급여가 줄어들긴 했지만 일에서 보람을 느낀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 과거 워크넷 활용 여부

- 퇴직 이후 워크넷을 거의 매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요즘도 심심할 때마다 '얘네들이 사이트를 잘 운영하고 있나'는 생각에 상당히 자주 들어가봅니다.

☞ '더 워크'(The Work) 서비스를 아는지

- 네, 아주 잘 압니다. 빅데이터다 뭐다 해서 로그인하면 채용, 훈련 이것저것 추천해주던데 이전과 비교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 사용 소감

- 제가 워크넷에 자기 소개서와 자유 이력서 두 개를 올려두는데요. 더 워크에서 추천해주는 공고 같은 걸 봤을 때 제 관심분야·경력·자격 등과 아주 잘 맞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제가 송파구에 있는 빌딩에서 경비 업무를 1년 정도 맡다가 그만둔 적도 있는데. 이런 경력도 제가 올려두면 다 반영해서 추천해줍니다.

☞ '더 워크' 관련 아쉬운 점

- 글쎄요. 추천 서비스는 다 만족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 워크넷 관련 아쉬운 점

-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기본 자기 소개서 형식은 인쇄했을 때 인쇄면이 너무 깁니다. 막상 인쇄해보면 지원자 한 사람당 2~3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구인 하는 입장에서 불편합니다. 저는 제가 워크넷으로 일자리를 구할 때 보는 사람이 편하라고 자유 이력서를 한 쪽으로 작성해서 등록했구요. 빌딩관리 소장으로서 함께 일할 사람을 뽑을 때도 자유 이력서를 받았습니다.
- 나이 든 사람은 워크넷에 가입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외국계 회사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도 능숙하게 다루던 사람 인데요. 퇴직하고 나서 보니 입력하는 게 많아서 워크넷에 회원가입하는 것도 어렵더라구요. 지금은 그래도 익숙해졌지만 제가 인터넷에서 운영하는 30명 규모의 은퇴자 카페에서 의견을 들어봐도 비슷합니다. 나이 든 사람도 좀 더 쉽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기타

- 나이가 들면 취업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저는 일부러 고졸로 학력을 낮춰서 지원한 적도 있는데요. 요즘 경비, 주차 같은 직종은 50대 중반이 아니면 면접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직장생활 각오 한마디

- 아직까지 제가 사회에서 시장 가치가 있어서 이렇게 회사를 다니는 것 같습니다. 오래 전에 전자공학을 전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기 기사도 따고 싶어서 총 2,400시간 정도 공부하는 걸 목표로 하루에 8시간씩 꾸준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할 겁니다.